

데스크 톱



서미애
국장 겸 경제부장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수선하다. 사람들은 지쳐간다.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 서기는 일상이 돼버렸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면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인 듯 저만치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어떻게 해!"라며 눈을 흘긴다. 우리 일상은 '잠시 멈춤'이 아니라 '계속 멈춤'이다. 스포츠 경기와 문화공연도 멈췄다. '기생충'으로 국제적 성기를 높인 우리 영화계도 멈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자며 팔을 걷어붙이고 피해를 본 이웃을 돕기에 나섰다. 땀땀 땀땀. 신천지와 일부 개신교회는 빼고. 참 대단한 민족 근성이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자 각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대응을 칭찬하는 기사를 경쟁하듯 쓰고 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인이 주목하는 나라

코로나 위기 극복 '이상한 나라, 한국'

가 됐다. 무엇이 한국의 평판을 만들고 한국의 차이를 만드는가? 앞서가는 의료시스템과 함께, 투명성과 개방성, 리더십과 국민연대가 융복합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위기를 맞으면 단결해서 재난을 극복하는 세계적 톨모텔이 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언론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상한 나라, 한국'이야말로 좋다. 놀라울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한 나라 이미지가 한국만의 독특한 차별성을 만들고 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유전자와 '은근과 끈기'로 표현되는 자제력과 응집력이 빛나고 있다.

세계에 빛나는 한국 평판

얼마 전 월가 투자의 3대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앞으로 최소 10년에서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매력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에 엄청난 부와 기회가 쏟아질 것이라는 말인데 듣기에 좋은 말이다. 우리나라 미래와 경제에 대단히 희망적인 기대를 하는 듯하다. 하긴 우리나라는 이미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과 같은 분야에서 다수의 세계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제조업 초강대국이다. 게다가 자동차 분야를 빼놓고 대부분은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 1위 자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들이 보여준 집단지성과 시민 정신은 어떤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광주·전남형 방역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의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사재기 없는 위대한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정신은 단연 특이다. 집단 감염을 일으킨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광주시의 전수 검사, 전남대병원과 조선대 병원, 민간병원과 의료진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협력, 바로 그것이다. 방역은 마지막까지 맘 놓을 수 없다. 잔물 관리가 중요하다. 감염병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밤심은 금물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 지역사회 움직임은 어떤가. 마스크와 건강음료 같은 구호물품 기부가 잇따르고 '착한 임대인 운동'이 퍼지고 있다. 개학 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물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판로 개척 활동도 활발하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최근 '건강 기능성 음료'를 선물했다. 광주시도 시민들이 모은 마스크·김치·건강음료 등 5,400만 원어치의 기부물품을 서울로 보냈다. 장사가 안돼 어려운 이웃 상인들을 도우려고 물품을 사주고 구매할 물건은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기

부하는 '일석이조' 운동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도 활발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 정부의 투명한 태도와 민주주의적 자세가 돋보였다. 환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의료진과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협력하는 시민 정신도 감동적이다. 위기 때마다 보여주는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인 헌신 스토리가 즐비하다. 세계인들에게는 오죽하겠는가. 놀라움과 공감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우호적이고 신뢰를 갖고 있다. 우리는 좋은 국가적 평판으로 낙낙한 미래 자산을 확보한 셈이다.

지역사회 '나눔 릴레이'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무색하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 사태는 계속되고 있으니 자찬하면서 더욱 힘을 내는 것도 좋지 아니한가. 우리는 '이상한 나라'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시민들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위험을 피하지 않았고 함께 응급하게 싸우고 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다. 더 나아가 점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게 우리의 노하우를 알려주며 도와야 한다. 우리만 이겨냈다고 해서 안전한 줄 없다. 두루두루 안전해야 한다.

기고



박종균
광주시 동구의회 의장

최근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해 20만여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도 9,000명을 넘어섰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위험이 전 세계를 강타하며 세계를 심각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 또 대구·경북지역에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요양시설 등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등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 지역사회의 전반적 경기침체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

코로나19, 이제는 장기전을 준비할 때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정부만의 역량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며, 재난피해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의 재난관리는 재난관리체계의 구축, 법제도 정비, 조직과 예산 등 정부의 역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주민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코로나19가 강타한 도시를 봉쇄한 중국과 달리 우리는 정보 공개, 대중 참여, 광범위한 검사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했다. 확진자의 카드 사용 내역,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14일간 동선을 파악하고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새로운 확진자가 나올 때는 해당 환자가 나온 지역에 거주·근무하는 사람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해 선제적 검사를 제안했다. 이러한 대응은 확진자의 사생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게끔 도왔다.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그리고 많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했다. 하루 약 1만여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빠른 진단 능력으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원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확진 판정이 나가거나 의심 환자 일 경우엔 검사가 무료였던 점도 시민들이 검사를 받는데 더 수월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렇듯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검사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또 유치원·초·중·고교의 개학을 늦추고 어린이집 휴원을 연장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경북 요양시설의 경우 코호트 격리 등을 통해 추가 전파 차단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1~2주 사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며, 이 같은 상황을 수개월씩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국은 4월 개학이라는 조강수를 꺼내 드는 것은 물론, 공항 검역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확산과 해외 유입 차단이라는 다양하고 강력한 전략을 펼치

고 있다. 이런 대책과 함께 전문가들은 앞으로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도 유행이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전에 대비한 새로운 일상에 대한 준비를 주문하고 있다. 첫째, 사업장, 기관, 학교 등은 '아파도 나온다.'라는 문화를 '아프면 쉬다.'로 바꿀 수 있도록 근무형태나 근무조건 개선 필요하다. 둘째, 고위험군의 감염을 막기 위한 세심한 사회적 거리 두기 계속 실천해야 한다. 셋째,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생활 및 업무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기 등이다. 그래야 실질적인 감염병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재난기반소득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을 통해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더 나아가 광주 시 공공의료원 건립을 통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의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바로 지금이 정부와 의회가 국민을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지광장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케 한 경우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개정 특별법외 가중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 특별법외가중처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

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1월께 북구 양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7세 어린이가 중상해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모든 운전자가 안

전운전을 생활화해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정지차단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차자는 금물이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어린이의 모범이 돼 무단 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운전 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광주북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백중환

사설

방역지침 위반 시설 엄중조치 당연하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다중시설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교회 등 다중시설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은 국민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일부 교회 등 집단시설에서 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공감을 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어긴다면 국민 생명권 차원에서 엄단하길 촉구한다. 이 같은 이발 행위 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교회와 체육 및 유흥 시설들은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어기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계속하고 있다. 광주만 하더라도 상무지구를 비롯 유흥가 밀집지역엔 밤 시간

많은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고 있다 한다. 그런가 하면 광주지역 개신교회들도 많은 신도가 참여하는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일요일 광주지역 255개 교회가 예배를 강행했다 한다. 만약 한 곳에서라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면 여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생명과 지역사회 안위를 위해 당분간 만이라도 참여 달라는 호소를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답답하다. 광주시는 일부 교회에 현장예배 대신 온라인예배나 가정예배로 대체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집단 예배를 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만약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치료비용 자기 부담 등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일부 교회와 다중시설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삼 당부한다.

'시농만' 낸 민주당 광주·전남 총선공약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단지 '시농만' 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도 현안사업의 나열에 불과했기 때 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5대 핵심 가치, 10대 정책과제, 177개 세부 실천과제가 담긴 중앙당 차원의 21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17개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광주시의 경우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군공항 이전 사업 차질 없는 추진, '광주정신' 현 법전문 수록 추진, '광주형일자리'로 도시 조성사업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됐다. 전남은 2022년 한전공대 개교·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 e-모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도내 의과대학 설립 추진,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실현 등이다. 그러나 이

들 공약 대부분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중점 추진 해온 사업들로 기존 사업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신선하고 차별화된 공약이 없다는 얘기다. 당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뭔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당 소속 단체장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무성의하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특히 광주·전남 대표적 상생 사업인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의 경우 광주 쪽엔 포함됐으나, 전남엔 언급조차 없어 '철뿔발이 공약'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내건 공약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땃발발'이 가능할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지역을 위한 참신한 공약을 내놔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에 지역사회 힘 모아야

기시수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광주에서 발생한 지 두 달째 접어들었다. 지난달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역민의 일상엔 코로나19 전과 후로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면서 지역사회와 실물경제가 위축·둔화했다. 초·중·고교 개학이 두 차례 연기되면서 등 교육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보건당국은 향후 1~2주가 코로나19 차단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 와 개인 1차 방역 동참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PC방·노래방·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2주간 영업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영업을 계속할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요청했다. 감염병관리전담요원 배치, 순세정제와 휴지 비치 및 위생환경개선, 청소·소독·환기 강화, 직원과 방문객에 대한 유증상 및 발열 확인, 상호 접촉 금지, 일자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황에란
정기부 차장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가급적 온라인 예배나 가정예배로 대체하고 집단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집단예배를 할 경우 마스크 착용, 연시사람 2m 이격, 식사 제공 금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만약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치료 비용 자기 부담 등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와의 접촉 차단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다중집합시설 이용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배상책임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시행 전 사전에 알리는 계도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의 선도적·모범적 시행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medical help.

Table for 전남매일 (Jeonnam Daily)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ddress, phone numbers for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and website information.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